



떠나자 캠핑

초여름, 산으로~ 바다로~ '캠핑의 계절' 이 돌아왔다

가족단위 캠핑객 야외활동 최적
야영장·카라반 '오감만족' 확산
캠핑장비 없다면 글램핑장으로
바비큐·모닥불 등 특별한 추억

모해변, 모구리아영장, 돈네코야영장, 표선야영장 등
제주에서 공식적으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만 대략
50개에 이른다.

캠핑의 묘미는 무엇보다 야외에서 직접 고기를 굽고
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이다. 까만 밤에 시원한 밤공기
를 마시며 발갛게 달아오른 숯불에 구워먹는 고기의 맛
은 그야말로 천하일미다. 고기굽기는 아빠의 몫. 가장
에게는 그동안 가족들에게 점수가 깎였던 아빠의 자리
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.

킥하면 하나를 훑어 먹어도 집에서 먹는 맛과는 견
줄 바가 아니다.

밤이 무르익을 즈음, 풀벌레의 노래와 조용한 어둠
속에 바라보는 별빛, 그리고 달빛의 몽환적 분위기는
마치 자신의 우주의 일부처럼 느끼는 묘한 감정까지 갖
게 한다. 가족 뿐 만인가. 직장동료나 동호인들끼리 함
께 자연 속에서 하는 캠핑도 매력적이다.

▶장비도 없고 번거롭다면 글램핑장 '강추' 최근 캠
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캠핑관련 물품 구매
가 급증하고 있다. 하지만 워낙 고가인 데다 1년에 몇
번 쓰지 못하고 집이나 차에 보관하기도 난감하다. 이
럴 때는 글램핑장을 추천한다.

글램핑장은 텐트 안에 화장실과 샤워실도 갖춰진 곳
으로 그야말로 몸만 가면 된다. 고기와 간식거리, 음료
등을 챙겨가면 현장에서 쉽게 바비큐를 즐길 수 있다.
뿐만 아니라 숯이나 고기, 먹거리를 모두 구매할 수
있는 편의점도 글램핑장 내부에 있다.

글램핑장마저 사람이 많아 싫다면, 카라반을 가면 된
다. 마치 캠핑카를 이용하는 것처럼 색다른 묘미가 있
다. 함덕이나 애월, 표선 등 대부분 해변에 위치해 있고
접근이 쉽다.

즐겁고 안전한 캠핑을 즐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
하는 예절 또한 중요하다. 텐트의 특성상 방음이 잘 안
되기 때문에 주변에 피해를 주는 지나친 음주나 고성방
가, 흡연 등은 자제해야 한다. 떠날 때에도 쓰레기 처리
와 깔끔한 뒷정리는 필수다.

백문투기자 haru@ihalla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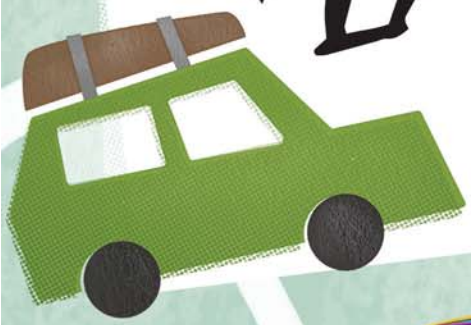
“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~, 해변으로
가요~.”

초여름이다. 바다로~, 산으로~ 가족이나
연인·친구끼리 야외활동을 하기에 1년 중
지금의 때가 가장 적기다. 무덥지도 않고 그렇
다고 밤에 춥지도 않은 적절한 온도 역시
제격이다. 제주를 캠핑의 천국이라 할 수
있다. 산과 오름, 그리고 바다가 지척이다.
청정한 공기와 맑은 물, 여기에 신록이 우거
진 숲길과 휴양림에서의 휴식은 도시에서 쌓인 스
트레스를 날리기에는 최적의 치료제다.

가정의 달 5월, 그동안 가족에게 소원했다면 남은 기
간 캠핑을 즐기며 가족애를 나누는 것을 추천한다. 캠
핑장비가 있다면 캠핑을, 그렇지 않다면 몸만
가면 되는 글램핑장이나 카라반을 추천한
다. 바비큐가 맛있게 익어가고, 폭신한
잔디밭에 누워 밤하늘의 별과 달을 바
라보는 여유는 캠핑의 묘미다. 무엇
이든 정해졌다면, 행동으로 저지르
는 게 상책. 집 문을 나서는 순간부
터 두려움은 잠시, 즐거움은 가득하
고 웃음꽃이 피어난다.

▶텐트를 치는 순간 '마법'이 깨어
난다=제주시 교래자연휴양림과 비자
림, 서귀포자연휴양림 등이 캠핑을 위
한 데크가 마련돼 있어 편하다. 한라산
관음사야영장도 텐트족들이 좋아하는 장소
다. 여기에 김녕해변, 금능해변, 협재해변, 하

모해변, 모구리아영장, 돈네코야영장, 표선야영장 등
제주에서 공식적으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만 대략
50개에 이른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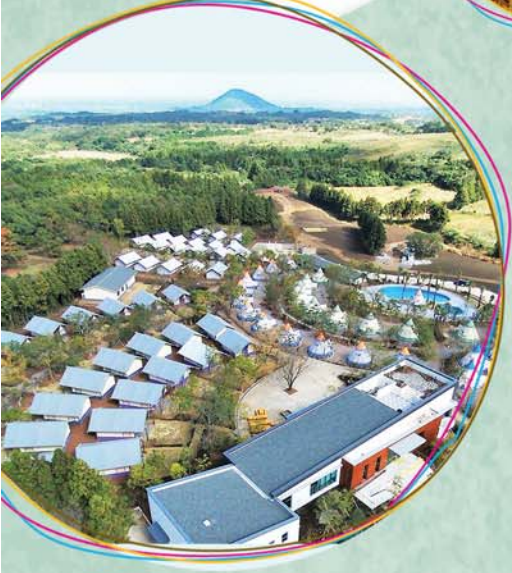
표선캠핑카라반



제주글램핑 무한자미항



모구리 야영장



사진=제주글램핑 무한자미항·표선캠핑카라반·모구리 야영장.



40년 전통 수제 신사복 전문

골덴라사

맞춤 양복은 명품(名品)입니다.
맞춤 양복은 오직 한사람만을 위한
예술품입니다.

춘하복 신제품 대량입하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.

골덴라사 | 제주시 남성로 166(남문로터리 서쪽) T. 722-3679, H,P 010-7622-3679